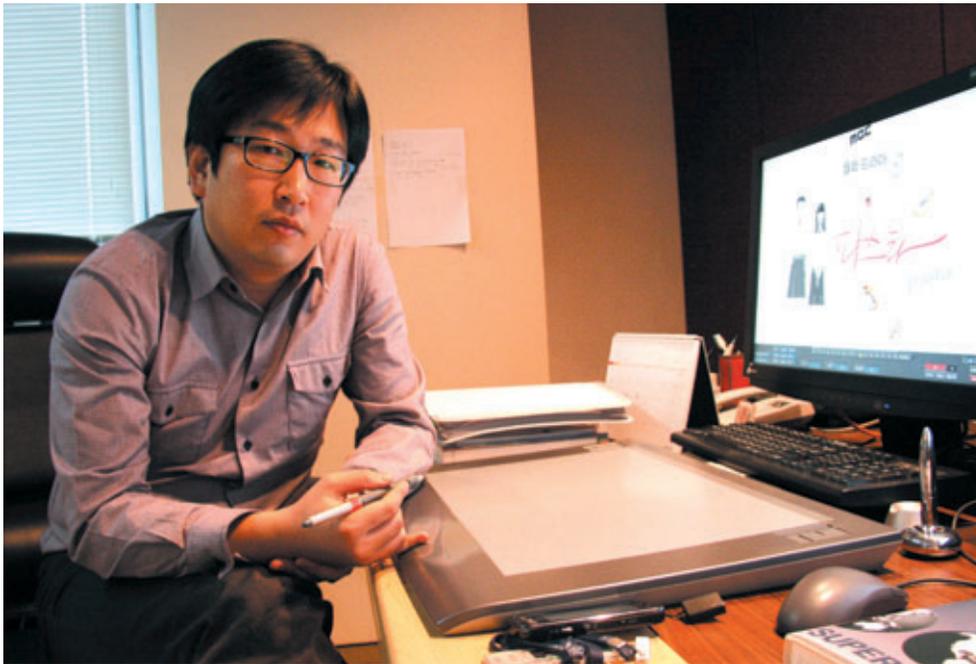


박은석(MBC 제작기술국 종합편집부)

특수영상은 엔지니어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분야다



알림

전자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로 군복무시절에는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싶어서 독학을 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학과공부를 미룰 수 없어서 복학 후에는 전공 공부만 했지요. 그러다가 4학년 때 IMF를 직격탄으로 취업을 미루고, 기술고시를 준비했고, 다음해 2차를 준비하던 중에 MBC에 합격하여 입사하게 됐어요.

대학 4학년 당시 한창 열풍이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영상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때는 회사에 입사하기도 전인데, 아무도 관심 없는 홈페이지를 예쁘게 만드느라 술하게 밤을 샜었죠. 입사 후 지금까지(10년) MBC 종합편집부 특수영제작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방송사 특수영상제작실의 업무

각 방송사마다 인력구조나 업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수영상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는 대체적으로 드라마/다큐멘터리/오락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오프닝타이틀/브릿지/각종 영상효과 등을 기획, 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최근 들어, 영화에서처럼 기획부터 참여하는 경향이 높고, 콘티작업/현장촬영 등을 통해 프리비주얼까지 중요한 룰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는 TV영상에서도 고난도의 퀄리티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죠.

기억 속의 작업들

첫 작업이었던 '1%의 모든 것'이라는 작품이 생각나네요. 누구에게나 처음이라는 것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불새'라는 작품이 있는데, 처음으로 3D와 파티클의 접목을 시도한 도전적인 작업이었어요. 특수영상의 엄청난 작업 양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랐던 물랑공세의 작품이죠.

최근 작품으로 '맨땅에 헤딩'과 '선덕여왕'이 있는데, 맨땅에 헤딩은 외부에서 진행되던 특수영상 작업을 내부에서 시도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 작품이었어요. 선덕여왕은 높은 시청률이 말해주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성공리에 종영을 했는데요. 새롭고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였던 작품이에요.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특수영상 기술이 많이 녹아난 드라마죠.



특수영상의 어려움

특수영상은 엔지니어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도전의 영역이에요. 그러다보니 다른 영상이나 음향, 조명의 전통적인 업무와 달리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해야 되죠. 그만큼 선행자 없는 길을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극도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현재의 인원으로 방송은 지장이 없지만, 인원이 더 충원되면 더 많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분야는 더욱 치열해지고, 프로그램 퀄리티의 중요한 승부수가 될 거예요. 차츰차츰 교육과 실무를 통해 인력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넓은 시야로 미래의 방송을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일 속의 보람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끝냈을 때, 이전에 없었던,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어요. 특수영상 VFX는 말 그대로 특수한 영상효과인데 모두 알고 있는 영상효과는 더 이상 특수영상이 아니겠죠. 따라서, 항상 진화해야 하고, 신기술, 고급기술을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구현할 수 있어요. 담당 PD로부터 감사와 격려의 표현을 받거나, DC캠프에서 네티즌들의 칭찬을 보았을 때는 “그래 이 맛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성취감과 호응이 함께 오는 순간, 그동안의 힘들었던 작업과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죠.

진행 중인 작업

요즘은 월화 드라마 '파스타'의 특수영상 작업을 메인로 담당하고 있어요. 작업 중에 드라마 1회 때 보면, 공효진(서유경 역)양이 들고 있던 얼음을 실수로 팔팔 끓는 기름통 속에 쏟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이 특수영상으로 작업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끓는 기름에 얼음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촬영이기 때문에 특수영상으로 실감나도록 작업을 한 거죠. 얼음이 싱크대 위를 구르는 장면을 초고속카메라로 촬영하고, 얼음 조각의 세말함까지 표현하여 기름에 빠져 터지는 장면까지 현실감을 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했어요. 드라마 사이사이의 이런 섬세한 특수영상 작업들이 작품의 퀄리티를 높인다고 생각해요. 좋은 작품이 되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파스타
2010



After

에피소드

특수영상에 대한 이해가 엔지니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에게 필요해요. '맨땅에 헤딩' 촬영당시 정신병원 건물 이 붕괴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무대 세트를 제작해서 촬영하는데 제작된 무대 세트를 보고 놀랐죠. 붕괴되어 떨어지는 잔해를 제작을 해서 바닥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메인 세트 외에 떨어지는 잔해나 먼지, 불꽃 등을 모두 특수영상으로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촬영하는 줄 안거죠. 촬영이 끝나고 후반작업을 하면서 실제 촬영된 벽이나 잔해를 별도로 지워내느라고 정말 고생했어요.

준비하는 마음가짐

현재 특수영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선구자로 특수영상의 1세대죠. 간단한 합성 작업만으로도 감탄하던 시절부터 특수영상을 시작한 분들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작업은 AVID/SMOKE 등 편집/기본 합성들에 넘겨줘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젠 VFX 2세대를 맞이하는 시점이 된 거죠. 물론, 당분간은 그런 작업도 병행하겠지만, 이제는 엔지니어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VFX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예요. VFX 영역은 무궁무진하고, 고부가 가치여서 미래의 엔지니어세대에게 물려주기 아주 좋은 업무예요. 이런 분야를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력하여 내 것으로 승화시키고 방송사 내부의 업무로 이끌어 가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가치가 있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바람

영화 '아바타'를 보고 충격이었어요. 특수영상이라는 분야를 업으로 하면서 큰 괴물이 한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집어 삼킨 듯 씁쓸한 기분일까. 거대한 자본과 물량에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에 스스로 노력하고 발전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3D가 대세고, 우리나라도 국책사업으로 각 방송사들이 3DTV 용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화 쪽의 일부 선두주자들이 있지만, 인력이나 시간, 재정 등 많은 요소들이 발을 잡더라고요. 그래도 그중에서도 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돼요. 올해라도 3D에 관한 이론부터 실습, 현장투입까지 계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이 생겨야 돼요. 교육시설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도전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하였는데, 자신이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겠어요. 그러기 위해 개인적으로 기획, 제작, VFX까지 영상을 제작해보려고 해요. DSLR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용하여 'youtube'에 흥미로운 영상물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짬짬이 소규모의 작업을 통해서도 영상물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돼야 트렌드도 앞서 나갈 수 있고요.



선덕여왕
2009



After